

대타협 통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지원센터' 역할 기대

사회·경제 상생 모델 구축...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연구도

전남대학교 내에 첫 동지를 틈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민선 6기 광주시가 시도중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실험에 대해 정부와 재계는 물론 지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광주형 상생 사회·경제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센터는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들이 서로 소통하는 만남의 토대를 마련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의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립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통합과 관련한 선진적 제도와 사례를 연구·조사하고 공유해 광주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모델을 개발해 내기로 했다.

우선 '노'와 '사'가 양보해 상생할 수 있도록 일본과 독일 등 선진 기업의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광주공동체는 물론 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형 상생 모델이 구축되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기업 등과 사회적 협약도 맺을 예정이다.

센터는 개원과 동시에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특히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매주 한 차례씩 '상생 세미나'와 분기별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여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를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 콘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27일 공모를 통해 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김상봉 센터장 등 8명으로 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찾아가는 시민동물교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유기동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정서안정 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관인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정서안정사업 참여 가정을 비롯한 반려동물 동반시민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시민동물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의사들이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과 건강관리 요령을 알려주고, 1대1 건강검진도 진행했다.

빛고을 열린 강연방 '아리바다' 인기 폭발

교양·인문·인권 등 명사 강연 입소문...두달만에 조회수 1만건 돌파

국내 저명인사와 지역 대학 교수 등이 지식 유무에 상관없이 '빛고을 열린 강연방'이 강연 제공 2개월만에 조회수 1만건을 돌파했다. 지식공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열린강연에 동참하는 유관기관이 대학에서 지역 기업과 종교단체, 교육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지난 3월16일 문을 연 빛고을 열린강연방 '아리바다'가 한달만에 조회수 5090건을 달성한 데 이어 이달 12일 1만45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리바다는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운영 중인 각종 강연을 재능기부 방식으로 제공받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지식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광주시가 처음으로

개설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유익한 강연이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시민에게 널리 제공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시와 유관기관, 주요 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각종 강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아리바다 홈페이지(누리집 http://aribada.gwangju.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리바다 홈페이지는 교양과 인문, 인권 등 3개 테마로 구성, 월 평균 6편의 강연이 기부되고 있으며, 현재 25편의 강연들이 구축돼 있다. 명사들의 강연기부가 SNS 등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려지자 시작하면서 조회수가 빠르게 증가하자 지식기부에 동참하는 유관기관도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역 7개 대학교가 광주시와 지식공유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광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산학협력동연구원(기우리)도 아리바다에 강연물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광주 시교육청은 검토 중이다.

시는 아리바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협력 기관과 다양한 정보를 공동체 문화"라면서 "아리바다가 광주가 광주의 미래를 향한 등불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지식 공유는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 문화"라면서 "아리바다가 광주를 대표하는 나눔과 공유의 온라인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골프 박람회 17일까지 DJ센터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골프 전문 박람회인 '2015 광주 골프쇼'가 오는 1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골프용품 관련 8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골프클럽, 골프리프, 스윙분석기, 스윙조정기구, 골프용품, 골프맵버시, 퍼팅연습기 등 골프와 관련된 아이템을 전시·판매한다.

특히 인도가 연습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타장'도 들어서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2015년도 신상 클럽들을 직접 시타해 볼 수 있는 시타대회도 진행된다.

시타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경품도 증정한다. 관람료는 2000원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車부품 중기 본격 지원

레벨업 컨설팅 등 역량강화 예산 10억 확보...기업 모집

광주시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원장 오영)과 함께 지역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역 내 자동차 부품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미 확보한 5억원을 포함, 올해 총 10억원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은 14일 오후 진곡산단 내 광주그린카진흥원 대강당에서 '(재)광주그린카진흥원 기업지원사업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사업 등 총 3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SQ인증 Level-up 컨설팅 지원,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 26262 지원, 신사업 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합 기술지원,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등이 소개됐다.

손경중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지역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

市-자치구 18~22일

광주시는 14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자치구 간 교차 점검방식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불법

물건저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점검하고, 2013~2014년에 선정돼 추진중인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상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 촬영한 사진 자료와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을 비교 분석해 불법 건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기간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주민지원사업도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불법 건축물 21건, 불법 형질변경 4건, 물건저치 1건, 기타 3건 등 총 29건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하세요

어패류 가열 후 먹고 피부 상처뎀 바닷물 접촉 피해야

광주시가 최근 해수 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중순 올해 처음으로 해수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분리됐으며,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해수에서 확인된 이후 1~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금까지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해수에 상존하다가 해수 온도가 18°C 이상이면 균 증식이 증가해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 혹은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해수가 상처 부위에 접촉될 경우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된다.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리면 급작스런 발열, 오한, 구토, 전신 쇠약감, 설사, 수포, 궤

양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50% 이상인 경우 있으므로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특히 고위험군인 만성간질환자(만성간염, 간암, 간경화 등), 면역저하자(AIDS, 백혈병, 항암치료 중인 암환자, 장기이식환자 등), 알콜중독자 등은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원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어패류는 가급적 5°C이하 저온으로 보관, 85°C 이상 가열처리 후 섭취해야 하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천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 (초회 공제 5만원 이상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철입회 후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이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